

# 경북매일신문

09월 13일 004면

## “시의회 윤리조례 강화해야”

### 대구참여연대

대구참여연대는 12일 대구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심천구밖조례안’ (이하 의원 윤리조례)에 대해 심천사항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.

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병시에 시 “의원윤리조례안에는 겸직금지 불분명히 규정하고, 본인 및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영리·비영리 관련 직업사항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이어 “시의원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심사 및 징계 사항을 논의할 ‘의원윤리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하고, 독립기구로 의부인사가 참여하는 ‘의원윤리심사위원회’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덧붙였다.

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“이번에 제정되는 의원윤리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강화하고, 연관된 조례와 구직들이 함께 개정돼야 할 것이다”고 했다.

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제 154회 정례회에서 의원윤리조례를 발의, 13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.

/장영훈기자